

# 조심조심 코리아~ 안전한 일터 만들어요.

##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인쇄관련 안전장비 다수 전시



2010 국제안전보건전시회가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 홀B에서 열렸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최로 열린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조심조심 코리아'다. '조심조심 코리아'는 우리 경제를 성장시켜 온 '빨리빨리' 문화를 이제 안전분야에서 만큼은 '조심조심'으로 바꾸자는 의미다.

개막식에서 노민기 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고 유럽연합(EU)의 3배에 달하는 후진국 상태"라며 "안전보건 선진국이 되려면 각종 제도 및 국가적 자원 배분을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안전보건전시회는 미국 일본 독일 등 15개국 200여 업체가 참여해 산업안전과 소방, 교통, 전기,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1만여 점의 첨단 안전보건장비를 선보였다. 이들 제품들은 단일 기능보다는 몇 가지 기능을 동시에 구현하는 멀티 제품이 많았으며, 디자인 역시 뛰어나 일상생활

에서 사용을 해도 좋을 만큼 패션화 흐름이 뚜렷했다.

인쇄사와 관련된 제품으로는 (주)수성산업운반기계에서 전동지게차 및 전동 팔레트 트럭 등을, (주)에고테크에서 피로도도를 낮추는 에고매트와 에어벨트 등을, 유한김벌리에서 면과 같은 감촉의 고흡수 고강도의 와이퍼와 방음용 귀마개 등을 전시했다.

◎ 다양한 피로 예방 제품\_ 피로를 측정하거나 예방해 주는 제품이 다양하게 전시됐다.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피로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족압 분포 측정기, 인간공학 적 설계로 피로를 흡수하여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피로예방매트, 허리보호용 벨트도 전시됐다.

◎ 안전조치 기준 적용한 지게차\_ 인쇄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동지게차 및 이동식 테이블 리프트 등이 전시

됐다. 이동식 테이블 리프트는 반복 작업 시 작업자가 허리를 굽히지 않고 제품을 주입 또는 인출할 수 있는 최적의 높이로 맞출 수 있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작업자의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다.

◎ 칼에도 찢어지지 않는 안전장갑\_ '케블라' 라는 특수 소재로 만든 장갑이 선보였는데, 이 장갑을 착용하면 작업자가 칼이나 유리조각처럼 날카로운 물건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만질 수 있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전시회 기간 동안 ▲미래를 위한 안전보건전략 ▲산재예방을 위한 효율적 위험관리 ▲건강한 일터, 튼튼한 근로자 ▲화학물질의 새로운 접근 등을 주제로 다양한 세미나가 열렸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주



관으로 지난 7월 7일 제1주제인 미래를 위한 안전보건 전략에 대해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세미나가 열렸다.   
임남숙차장 sang@print.or.kr

## 세미나

#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백중배**  
충주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재해율은 보상을 위한 척도로 사용되었던 산출방법을 도입하였다. 그렇다보니 지금까지 중요했던 것은 산업재해의 발생 여부였으며, 사고 예방을 위한 그 중간과정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었다.

산업재해는 추락해서 다치고, 점화되어 폭발하는 단순한 사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생산공정 또한 복잡해짐에 따라 사고의 유형도 복잡 다양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복잡 다양한 재해를 단순히 결과만 놓고 분석한다면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 자체가 어려워지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결과만 두고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재해율이 높으면 위험이 높고 재해율이 낮으면 위험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도 결과를 두고 판단하는 한 단면으로, 이러한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해율 산정 방법부터 변경되어야 한다. 기초연구부터 접근하여 사고예방 중심의 재해율 산정법을 개발하고 이를 소속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

### 위험성평가와 손실방지 연계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서는 경영주들에게 안전관리를 하면 경영상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들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하려면 안전이 비용편익개념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을 계량화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위험성분석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위험성평가는 먼저 위험분석과 위험성평가로 구분해야 하며, 적용할 수 있는 도구는 체크리스트, What-if, FTA 등 적용대상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다르다. 위험분석은 잠재위험을 확인하여 위험 크기를 정하는 기법으로 그동안 우리가 위험성평가라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위험성평가는 위험분석 결과를 안전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에 포함하는 것이다.

아울러 위험을 잘 제어하기 위한 안전관리,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비용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손실방지 개념까지 위험성평가의 범주 안에 포함할 수 있다. 올해 시범 실시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현 주소는 위험성평가라는 것을 도입해서 손실방지개념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단계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위험성평가가 손실방지 개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자들의 의지, 근로자들의 참여분위기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차후 민간시장이 형성되어 위험성평가를 토착시키고, 일반보험으로까지 연계되는 사업이 뒤따라 올 수 있기 때문이다. ☺